구스타프 말러의 찬란했던 음악을 재현하다

전주시립교향악단, 비장감과 운명에 대한 격렬한 투쟁 묘사된 교향곡 5번 연주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적 감성이 선연하게 드러나는 곡을 감상할 수 있는 연주회가 열린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창단40주년기념 215회 정기연주회 〈GUSTAV MAHLER〉를 22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갖는다.

구스타프 말러(1860~1911)는 보헤미아 태생의 작곡가이며, 당대에는 지휘자로서도 크게 활약했다.

그의 한창때를 장식하는 대표곡인 교향곡 5번은 1901년(31세)에 작곡되었며, 전곡은 5악장구성으로 말러 특유의 비장감과 운명에 대한 격렬한 투쟁이 묘사되어 있다.

교향곡 제2번과 제4번은 성악을 곁들였으나 제5번에서는 다시 순수한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전향했고 그러한 경향은 제7교향곡까지 이어진다.

교향곡 5번 중 '제4악장 아다지에토'는 현악과 하프만으로 연주되는 우아하고도 투명한 음악이다. 이 악장은 그의 아내가 될 여인에 대한 사랑을 그린 곡이다.

그는 1901년에 19세 연하인 알마 쉰들러와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이듬해에 결혼했다.

알마 쉰들러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키스'의 실제 주인공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클림트를 비롯한 많은 남성으로부터 구애를 받은 만인의 연인이었지만 말러의 음악성에 매료당해 그와 결혼한다.

이날 공연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미경이 무대에 오른다.

이미경은 서울예고 2학년 재학 시에 서울교대콩쿠르와 이화경향콩쿠르에 입상한 후 유학길에 올라 퀼른 국립음대에서 수학했으며 현재까지 유럽에 거주하며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6년부터는 뮌헨 국립음대에서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녀의 연주는 수많은 방송 녹음 및 CD로 제작되었는데 특히 EMI, Claves, Ondine, Cappricio 등에서 많은 음반을 제작하였다.

관람료는 R석 10,000원/ S석 7,000원 / A석 5,000원 공연문의 281-2748

/정해은기자

전주시립교향악단 구스타프 말러 연주회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퀴즈에는 태조어진, 경기전, 조경묘, 조경단, 오목대, 이목대 등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된다.

전주 어진박물관, 과거시험 참가자 모집

10월 2일 오후2시 '도전 장원급제' 주제로 태조어진 과거시험 진행

어진박물관은 10월 2일(일) 오후 2시 경기전에서 태조어진 과거시험을 진행한다.

'도전, 장원급제'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서바이벌 퀴즈대회이다. 퀴즈에는 태조어진, 경기전, 조경묘, 조경단, 오목대, 이목대 등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된다.

장원급제자에게는 과거시험 합격증인서 홍패와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지며, 2~33등까지의 급제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또 시험이 끝난 후에는 어사화를 꽂은 장원을 필두로 한 과거급제자들의 축하행렬이 경기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어진박물관측은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전주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옛 교육제도를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전주의 역사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는 21일~23일 어진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하면된다. 선착순 100명 사전 모집.

문의는 학예연구실 231-0190.

/정해은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추석 연휴 3만여명 방문

근대사업 관광방향설정 성공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찾은 방문객 수가 3만 여명에 달하는 등 인기몰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당일인 15일에는 무료 개방에 따른 1만 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문전성시를 이뤘다.

박물관은 추석 연휴기간 24개의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연을 마련해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박물관 개관 5년째인 올해의 경우 이미 방문객 수 70만 명을 돌파했으며, 외지 관광객이 97%를 차지해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근대문화사업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군산시의 근대사업에 대한 방향설정이 성공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처럼 근대문화 중심도시 군산의 특화 박물관으로 2011년 9월 30일 개관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작년 한 해 관람객 81만 여 명이 방문하여, 명실상부한 지역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은 박물관 인근에 위치한 진포해양공원, 조선은행, 18은행 등 근대건축물 8개소를 연계한 테마형 볼거리를 제공한다는데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최초의 여류명창 탄생 스토리 경복궁서 공연

'진채선 경복궁에 다시 서다' 24일 오후 2시 특설무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명창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던 1867년 경복궁 경회루 낙성연 공연을 재연하는 공연이 오는 24일 오후 2시 경복궁 특설무대에서 특별하게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동리 신재효 선생의 지도아래 판소리를 익힌 진채선이 경복궁 낙성연에서 여성명창으로 데뷔한 역사적 사건을 재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46회 판소리유파대제전 경복궁 중건 성조가 발굴기념 공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1부에서 신재효 선생의 성조가가 낭독되며, 여는 소리로 그가 지은 성조가와 방아타령이 정수인 명창, 신영희 명창에 의해 재연되고 제2부에서는 창극, 판소리, 풍고 등 다양한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동리 신재효 선생은 일찍이 고창 모양성 앞 흥문거리에 위치하는 동리정사에 판소리 생활문화공동체를 조성하였는데 그 중앙에 멋진 정자와 연못을 만들고, 흥문거리를 따라 열네 칸 행랑채를 지어 수습 창자들과 숙식을 같이하며 판소리를 교육·수련·공연·평가하는 판소리학교를 열어 많은 명창들을 길러 내었다.

이 중 한 명이 진채선으로, 고창군 심원면에서 태어나 무당이었던 어머니를 따라 다니며 소리를 익혔다.

당시 집안이나 무부계열의 선생으로부터 소리를 배웠고 상당한 소리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마침내 신재효 선생에 의해 발탁되어 당대의 명창 김세종으로부터 소리를 사사받으며 명창으로 성장해 나갔다.

/고창=김영식기자

문체부, 야외공연 재해 대처 안내서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각종 야외 공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안내서에는 비상시 취해야 할 조치,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 등 지난해 11월과 지난 5월 개정된 '공연법'상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2014년 분당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외 장소에서 이뤄지는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 수립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두 차례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했었다.

한편 문체부는 지역 공연장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안전 전문성 강화와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권역별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여성 재취업의 용기와 도전에 박수를 보내며 진행되는 특강

"여성들이여 돈 벌 궁리를 하라"

전북광역 · 전북새일센터, 팽현숙 초청 특강

전북광역·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개그우먼 팽현숙씨를 초청해 '여성 취·창업인식전환 명사특강'을 개최한다.

21일 오후 1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명사특강은 여성이 소자본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상대적으로 여성이 유리하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며, 도전적인 여성 CEO를 육성하고자 기획됐다.

팽현숙씨는 '여성들이여 돈 벌 궁리를 하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이날 명사특강에서 그녀는 여성 최고경영자로 성공하기 전까지의 실패담, 경험담 등 에피소드를 전한다. 강연에선 10번의 사업 실패 후 '팽현숙의 옛날 순댓국' 체인점으로 대박을 터트린 성공비결과 실패 속에서도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용기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이에 신수미 센터장은 "우리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 탓으로 퇴사해 직장 경력이 단절되었는데, 여성인력 활용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며,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취·창업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재취업의 용기와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여성 취·창업인식전환 명사특강 및 취업박람회 운영관련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jbwc.r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취업지원팀 254-3610.

/정해은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9월 20일〉

▷쥐띠
48년생: 지병이 있는 사람은 컨디션 조절에 주의하라.
60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다.
72년생: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 이성을 주의.
84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니 매사 70%에 만족하라.

▷소띠
49년생: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61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평소 쌓아놨던 언행의 결실.
73년생: 인덕이 따르는 운이니 귀인이 도움준다.
85년생: 동기간에 화합하기 좋은 운이니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라.

▷호랑이띠
50년생: 중요한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는것이 좋은 운이다.
62년생: 시비수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니 언쟁은 삼가라.
74년생: 자신보다 힘든 상황의 사람에게 베풀면 덕이 돌아온다.
86년생: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토끼띠
51년생: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라.
63년생: 예상보다 상황이 쉽게 풀리니 기쁨이 있는 운이다.
75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 쓸 일이 발생.
87년생: 상황에 대해 탄력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는 운이다.

▷용띠
52년생: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 운이다.
64년생: 금전손실이 따르는 운이니 불필요한 지출을 삼가라.
76년생: 윗사람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88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으나 분수밖의 일은 불리.

▷뱀띠
53년생: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하면 좋은 결실이 따를 것이다.
6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니 큰일은 삼가라.
77년생: 평소 소홀했던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운.
89년생: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압받을 일이 생긴다.

▷말띠
54년생: 지갑은 열고 말은 줄이라는 것은 지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66년생: 윗사람의 덕을 볼 수 있는 운.
7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90년생: 평소 익숙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발생.

▷양띠
55년생: 금전의 손실이 발생하니 먼저 베풀어라.
67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말고 관망하는 자세로 임하라.
79년생: 주변사람들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발생.
91년생: 점심식사로 인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다.

▷원숭이띠
56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는 운이고 문서를 취해도 괜찮은 운.
68년생: 작은 막힘이 따르나 후반에는 잘 풀린다.
80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른다.

▷닭띠
57년생: 그동안 베풀었던 덕이 돌아오는 운.
69년생: 처음에는 막힘이 따르나 후반에는 풀리게 된다.
81년생: 타이밍과 화합이 중요한 운이다.
93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구인의 도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운.

▷개띠
46년생: 문서를 주고 받는 일은 좋다.
5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0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아 상황판단능력이 저하.
82년생: 금전의 손해가 발생하니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라.

▷돼지띠
47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마라.
59년생: 재물의 유동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르니 주의하라.
71년생: 하고자 하는 일어 방해를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83년생: 좋은일과 어려운일이 함께 발생.